

사드 직격탄...국제선 없는 국제공항 고속철 경유·광주공항 통합 구명줄

뉴스 초점

위기의 무안공항
되살릴 대책 없다

무안국제공항은 국토 서남권 거점공항이라는 위상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이를 값어치 못한 국제공항으로서의 위치마저 흔들리고 있다. 정기 국제선이 전멸 위기에 놓였기 때문이다.

◇사드 배치가 직격탄 = 무안국제공항을 위기에 몰아 넣은 것은 정부다. 사드(THAAD)가 직격탄인 탓이다.

아시아나항공은 유일한 정기 국제선인 무안~베이징 노선을 다음달 말부터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적자 누적으로 더 이상 운항할 수 없다는 이유다.

이 노선은 2008년 취항 이후 연평균 12억 원가량 적자가 발생했다. 올해는 지난 8월까지 평균 탑승률이 45.7%에 불과해 이대로라면 연말까지 20억원 적자가 예상된다.

무안공항 이용객은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18만8478명에 불과하다. 지난해 같은 기간(22만5523명)보다 4만455명(17.5%)이 줄었다. 특히, 같은 기간 중국 노선 이용객은 2만7419명으로 작년(5만3303명) 대비 48.5% 감소했다. 부정기 노선도 같은 기간 14.1% 줄어든 7만8006명에 그쳤다.

무안~상하이 노선을 운항하던 동방항공은 지난 5월10일부터 운항을 중단했다. 아시아나도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유일한

을 이용객 작년비 17% 줄어

중국 노선은 절반 가까이 폭

인천공항 국제선 분산도 방안

정기 국제선인 무안~베이징 노선을 포기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 정기 노선이 사라지면 무안공항은 전세기 공항으로 전락하게 된다. 일본 기타큐슈·나고야·오사카, 남극 상하이, 마카오, 베트남 다낭, 캄보디아 시엠펙, 필리핀 칼리보 등 8개 노선만 부정기적으로 운항한다.

국내선도 티웨이항공의 제주 노선 2편 뿐이다. 아시아나는 베이징 노선을 포기하는 대신 제주 노선을 신설할 방침이다.

◇호남고속철 경유가 무안공항 생명줄 = 무안공항의 생존 대책은 호남고속철 경유와 광주공항과의 통합이다. 여기에 포화상태인 인천공항의 국제선 일부 노선을 지역으로 분산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전남도는 무안공항 활성화의 최대 관건으로 호남고속철의 경유를 들었다. 이를 위해 최근 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한국개발연구원(KDI)에 공문을 보내 호남고속철도 2단계의 무안국제공항 경유 노선을 확정해 달라고 재촉했다. 국회도 지난 3월 호남고속철도 2단계 사업 조기 완공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공약으로 무안공항 경유를 약속했

다. 정부 국정과제에도 포함됐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아직까지 결론을 내지 않고 있다. 당장의 경제성만을 들어 미적대고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2006년 기본계획 고시 후 11년이 지났지만, 부처간 이견으로 노선 확정이 지연되고 있다”고 말했다.

광주공항 국내선의 무안공항 이전도 하나의 방안이다. 한국교통연구원 항공교통연구본부가 지난해 발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무안공항이 광주공항과 통합된 후 제주·김포 노선을 100% 유지할 경우 2020년 무안공항 국내선 수요는 연간 237만3000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절반이 유지될 경우 수요는 212만7000명이 될 것이라고 추정했다. 지난해 이용객이 32만명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것을 7.4배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정부의 정책적 결정은 물론 광주·전남지역 사회의 합의가 필요하고, 지방자치단체 간 이해관계도 얽혀 있어 현실화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높다.

포화상태인 인천공항의 국제선 일부 노선을 지역별로 분산해야 한다는 요구도 있다. 대륙별 노선 할당으로 지역 거점 공항의 국제선 노선 다변화와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 필요하다는 것이다. 실제 정부도 2007년 무안공항 개항 시 광주공항 국제선을 무안공항으로 이전하면서 중국, 동남아, 미주, 유럽 노선 등을 제주공항과 같은 수준으로 개방하기로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진실의 증언에 동참할 의로운 분 찾습니다



광주5·18민주화운동 기간인 5월 20일께 집압에 나선 계엄군이 전남도청 옥상에서 체력훈련을 하고 있다. <광주일보 자료사진>

발포 명령자·암매장...

광주일보 5·18 증언 접수

광주민주화운동의 진실은 은폐돼 있습니다. 80년 이후 37년 세월을 헤아리지 않 발포 명령자, 희생자 암매장, 헬기사격 등 광주시민이 갈구하는 그날의 진실은 여전히 감춰져 있습니다. 국방부 5·18 특별조사위원회가 조사에 나섰지만 수사권이 없는 상태여서 실제적 진실 규명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80년 5·18 현장의 목격

자를 다시 주목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5·18의 역사는 이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새롭게 쓰여졌습니다. 광주일보는 보수논객 지만일씨가 5·18 당시 사진에서 북한군으로 지목한 시민을 찾아내 ‘북한군 침투설’이 날조라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전남 마을 야산에 암매장된 시민 2명도 주민의 제보를 계기로 발굴됐습니다.

80년 당시 광주에는 집압에 투입된 공수부대원만 3400명에 달했습니다. 이들은 37년 동안 침묵하고 있습니다.

이제 침묵의 카르텔을 깨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당시 참상을 목격한 시민들의 증언도 절실합니다. 광주일보는 헬기사격, 암매장 등과 관련된 당사자, 5월의 진상을 알고 있거나 목격한 의로운 증언자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보·증언자들의 신상은 철저히 보호될 것입니다. 광주일보 편집국(062-220-0655, 0633, FAX 062-222-4918), 이메일 kimyh@kwangju.co.kr로 제보를 받습니다.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김동철 “전두환 국회 증언대 다시 세우겠다”

내달 국감 증인 채택 검토

5·18 발포명령 의혹 추궁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가 19일 전두환 전 대통령을 올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채택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이기도 한 김 원내대표의 이런 구상에는 5·18 유혈진압의 장본인으로 지목받는 전 전 대통령을 국회에 출석시켜 국민적 관심사로 떠오른 5·18발포명령자 등 핵심 의혹을 ‘당사자를 상대로 직접 추궁해야 한다’ 인식이 깔려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광주지선과의 간담회에서 “전두환씨를 국정감사 증인으로 세우는 것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5·18진상 규명에 대한 광주전남 민심도 뜨겁고 문 대통령과 여당도 5·18진상규명 의지를 수차례 밝히지 않았느냐”고 덧붙였다.

김 원내대표의 구상대로 전 전 대통령이 국감 증인으로 채택되기 위해선 국방위에서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벽을 넘어야 한다. 국회법은 국감 증인 채택과 관련해 ▲국감과의 관련성 ▲위원회의 의결 등을 요건으로 하고 있는데, 증인 채택을 위한 의결의 전단계로 여야 위원들의 합의가 이뤄져야 하기 때문이다. 김 원내대표는 “국감 증인으로 지목받는 전 전 대통령을 국감 증인으로 채택해달라고 요구하기 앞서 국방위 위원, 5·18단체 등 지역 시민사회단체, 당 내부 등을 대상으로 폭넓은 여론수렴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김 원내대표 측은 “증인 채택 여부를 국감 증인 채택을 위한 국방위의 결의 열리는 다음주 월요일(25일) 전후로 결정될 전망이다”이라고 말했다. 전 전 대통령이 10월로 예정된 국감의 증인으로 채택돼 출석한다면, 지난 1988년 광주정문호 이후 30년 만에 다시 광주 학생 관련 책임을 안고 국회에 출석하는 것이다. 당시 정문호는 전 전 대통령이 묵비권을 선언한 후 국회에서 책임회피와 불성실한 답변으로 일관, 미완의 정문호로 기록됐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전 전 대통령이 묵비권을 일관하다가 퇴장하자 명패를 뺐게 버리기도 했다. 전 전 대통령과 함께 5·18 유혈진압에 앞장섰던 인물로 지목받는 정호용 전 국방장관(당시 특전사령관), 장세동 전 안기부장(특전사 작전참모) 등 당시 군부 핵심들도 증인으로 채택될지 관심이 쏠린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광주지하철 2호선 내년 상반기 첫 삽 뜬다

윤시장 “난공사 예상 상무역~월드컵경기장 구간 우선 착공”

광주도시철도 2호선이 내년 첫 삽을 뜬다. 오는 2025년 완공을 목표로 내년 상반기에 공사가 힘든 구간부터 우선 착공하게 된다. <관련기사 3면>

윤정현 광주시장은 19일 도시철도 2호선 건설과 관련해 “난공사가 예상되는 1공구 일부 구간은 내년 상반기 중 착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선 공사를 시작하는 구간은 상무역~월드컵경기장 일부 구간(4.5km)이며, 교통량이 많은 구간보다 6개월가량 공사

기간이 긴 점이 감안됐다. 공사기간이 긴 구간을 먼저 착공해 다른 구간과의 완공 시점을 맞춘다는 구상이다.

광주 도시철도2호선개통 시기는 시청~월드컵경기장~백운광장~광주역까지 1단계 구간은 2023년, 광주역~침단~수완~시청 2단계 구간 2024년, 백운광장~진월~효천역 3단계는 2025년이다.

하지만 1단계 상무역~월드컵경기장 구간은 차량 통행량과 주변시설물 등이 많아 공사가 더디게 진행될 것으로 예측돼

서둘러 공사를 시작하게 됐다.

윤 시장은 이날 확대간담회에서 “내년 말까지 실시계획을 마칠 계획”이라며 “도시철도 2호선은 주요 대학과 도심 외곽의 인구 밀집지역 주변을 통과하고 1호선, 시내버스와 연계돼 대중교통 이용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 “2호선 개통 후 분야별도 어떤 영향이 있는지 예측해 중장기계획 수립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2호선 추진상황 등을 시민들과 공유해 애초 일정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피부의 균형을 바로잡아
찬란하게 빛나는 궁극의 윤기를 얻다**

설화수 윤조에센스

속부터 우러나오는 건강한 피부 윤기. 치유침 은 균형에서 시작됩니다
생기, 탄력, 투명, 자생력, 영양의 균형을 바로잡아주는 설화수 윤조에센스

삼천 가지 귀한 원료에서 찾은 다섯 가지 성분의 자음단™이 피부 본연의 윤기를 찾아주고
피부의 부족한 기운을 채워 가장 이상적인 피부균형을 완성합니다
매일 아침, 찬란하게 빛나는 윤기피부를 만나보세요

Sulwhasoo